

2005 PIUG Conference 참관기



혁신기획팀

김민아

PIUG 소개

PIUG 란 Patent Information User Group의 약자로서 특허정보에 전문적·기술적 관심을 가진 개인들이 모여서 결성한 비영리단체이다. 이들은 특허정보 관련 정보교환 및 인적 네트워크 형성을 목적으로 매년 미국에서 Conference를 개최하고 있으며, 올해의 PIUG Conference는 “The Future of Patent Information – Tools and Techniques for Adding Value”라는 주제하에 미국 버지니아 주의 Arlington이라는 도시에서 5월 21일부터 26일까지 7일간 개최되었다.

첫 느낌

2005년 5월 21일 토요일 오후 1시, 특허정보원 대표단은 설레는 마음으로 PIUG Conference 첫 일정을 위해 Hyatte Regency Hotel을 찾았다. 참가자의 자발적인 참여에 의해 몇몇 소규모 워크샵이 진행되었는데, 특허정보원 일행은 각각 자신에게 주어진 Mission에 따라 통계관련 워크샵과 Questel·Orbit이 주체하는 워크샵의 두가지 중 한 가지를 선택하여 참석하였다.

토요일이니만큼 참석자 대부분이 캐주얼 차림으로 행사에 참석했으며, 주최측에서 마련한 가벼운 다과회와 함께 자유로운 분위기로 워크샵은 진행되었다. 쉬는 시간이 주어질 때마다, 삼삼오오 모여서 자유롭게 악수를 건네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나도 용기를 내어 상대방에게 명함을 건네 보았다. 자연스럽게 인사가 오가고, 자기소개에 이어 간략한 회사소개, 그리고 행운이 주어진다면 사업논의까지 이어지는 대화의 고리. 어쩌면 인적 네트워크는 꼭 대단한 계

기가 있어야만 형성되는 것은 아닐 것이다. 내가 먼저 나아가서 “Hello”를 건네는 순간 국제네트워크의 첫 단추를 끼는 것이 아닐까..

사실상 워크샵의 내용은 학습의 효과를 논할 수 있는 수준은 아니었다. 특히 통계 워크샵의 경우 유료 워크샵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특허정보원의 특허정보전략팀원들의 지적 욕구수준을 채우기에는 역부족이라 조금 실망하기도 했다. 하지만 대다수의 참석자들이 연신 고개를 끄덕거리며 열띤 논의를 벌이는 워크샵 내용이, 우리 특허정보원 일행들에게 이미 익숙한 내용이라면, 그것은 특허정보원의 정보전략분야에 대한 전문성이 그만큼 높다는 것을 의미할 것이다. 열은 실망감 뒤로 서서히 고개를 드는 뿌듯함과 자신감! 이제는 이 자신감을 어떻게 키워나가야 할지에 대해 우리 함께 고민해야 할 것이다.

본격적인 행사의 시작

6월 23일부터 25일까지 3일간 PIUG Conference가 본격적으로 진행되었다. 행사는 크게 부스전시와 Technical Session(세미나)로 나누어지며, 참가자들 대부분은 Technical Session에 참석하고, 쉬는 시간에 PIUG 스폰서들이 운영하는 부스를 둘러보곤 하였다. PIUG측에서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2005년 PIUG Conference에는 약 320명이 참석하였으며, 참석자의 약 80%는 미국인이 차지하였다.

부스전시관은 예상보다 규모가 작았다. 특허정보원을 포함하여 25개의 특허정보 서비스 제공업체만이 부스를 운영했으며, 대부분의 업체가 화학·약학쪽의 분야쪽의 전문정보 제공에 초점을 두고 제품시연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이제 PIUG Conference의 일반적인 성격을 짐작해 볼 수 있다. 미국 특허정보 이용자 중심이며, 민간인 주도로 진행

되고, 화학·약학분야 전문가들이 주로 참석하여 정보를 교환하고 인적네트워크를 형성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행사가 바로 PIUG Conference 인 것이다.

부스 전시장 스케치

특허정보원의 부스는 부스전시장의 중간쯤에 위치하고 있었다. 전체 부스수가 25개의 소규모 부스전시장이니, 부스위치의 좋고 나쁨을 논할만한 가치는 없는 것 같다. 어느 자리에 있어도 모든 부스가 한 눈에 들어오니 말이다.

쭉 전시장을 둘러보니, Thomson Scientific이나 CAS같은 메이저 특허정보 제공업체의 경우 현란한 부스장비와 홍보물을 자랑한 것이 눈에 띈다. IP.Com이라는 업체의 경우 작은 Slot machine을 전시해 두고, 부스방문자들에게 당첨정도에 따라 선물을 제공하는 등, 대중의 관심을 끌기 위해 상당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러한 분위기에서, 특허정보원은 조촐하게 전시패널 3개를 이젤에 걸어두었으니, 상대적으로 부스방문자의 숫자가 적을 수밖에...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 투자비용 대비 효과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으니, 무작정 화려한 부스제작을 위해 비용을 아끼지 말자고 주장할 수는 없는 노릇이다.

특허정보원 대표단은 각자의 출장미션에 부합하도록 역할을 분담한 관계로, 본인과 KIPRIS팀의 업무택씨는 자연스럽게 부스운영을 책임지게 되었다. (물론 벤치마킹을 목표로 출장에 임한 직원들의 경우, 자료수집 및 세미나 청취를 위해 분주히 뛰어다녔다) 부스 방문자가 외국인이니만큼, 노트북 및 대여 모니터를 활용하여 KIPRIS 영문인터페이스 소개 및 KPA 검색시연에 역점을 두기로 했다.

부스 운영 첫날. 물밀듯이 밀려올 인파를 예상했지만, 방문자수는 내 기대에 훨씬 못 미치는 숫자였다. 부스를 운영한 총 3일동안 약 87명이 정보원 부스를 방문했으니, 전체 참가자(320명)의 약 30%정도에게만 정보원을 알린 셈이다. 게다가, 상당한 숫자의 방문자들이 WIPS, WISDOMAIN, KIPI가 동일한 회사인지 묻는 등, 특허정보원에 대해 알지 못하는 것은 물론이고, 한국의 유일한 영문초록인 KPA마저 접해본 적이 없으니, 나도 모르게 어깨가 축 쳐지기도 했다.

하지만 일부 전문가들의 경우, KIPRIS 시스템 및 KPA에 대해 상당히 심도 있는 의견을 제시하기도 했다. 해외이용자의 시각으로, KIPRIS 영문인터페이스의 이용자 편의를 높일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는가 하면, KPA와 같은 품질 높은 영문데이터가 앞으로도 계속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

해 달라는 격려까지 하기도 했다. 특허정보원의 일원으로써 긍지를 느끼는 순간이다. 다양한 고객의 의견을 수렴하여, 이를 시스템 및 서비스 개선에 반영할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큰 수확이 아닐까? 오늘도 본인이 작성한 “PIUG 출장결과 보고서”에 의거한 후속조치를 취하느라, 밤늦게까지 일하고 있을 KIPRIS 팀원들에게는 미안한 마음을 전달하고 싶다.



Technical Session 참관

Technical Session 주제

- 가. 1 주제 : USPTO의 문서전자화 현황
- 나. 2 주제 : 후처리 기법 및 도구
- 다. 3 주제 : 특허분석의 현재와 미래
- 라. 4 주제 : 특허업계의 현재와 미래
- 마. 5 주제 : 각국 특허청의 현황

Technical Session(세미나) 개최지로 발걸음을 돌려보았다. 약 350명 정도를 수용할 수 있는 크기의 세미나장의 좌·우로 대형 스크린이 두 대 설치되어 있었으며, 단상에는 대여섯명의 Speaker들이 관중을 바라보고 앉아있었다. 드디어 “The USPTO Goes Paperless”라는 주제로 발표가 시작되었고, 약 20분간의 발표 뒤로 약 10분간의 질의응답세션이 마련되었다. 약간은 과장스러운 제스처에 농담을 섞어가며 관중을 휘어잡는 연사들. 질문할 기회를 포착하기 위해 마이크 뒤로 줄을 이어선 관중들. 세미나의 뜨거운 열기가 내 불을 상기시킨다.

5분 Speech Speaker가 되어...

2005년 PIUG Conference는 Sponsor들에게 서비스 및 제품에 대한 간략한 홍보를 할 수 있도록 5분 Speech의 기회를 제공했다. 우리 특허정보원도 Platinum Sponsor로서 25일 목요일 오전 11시부터 5분간 발표일정을 잡아 두었다. 사실 본인은 특허정보원의 국제협력 담당자로서, 해외방원자들을 대상으로 특허정보원을 소개해본 경험은 있으나, 이렇게 많은 관중(약 300명)이 모인 자리에서 마이크를 사용해 가며 특허정보원을 홍보해 본 경험은 없었기에 긴장하지 않을 수 없었다. 혹시라도 관중들이 내 발음을 알아듣지 못하면 어쩌나? 미국인들이 한국특허정보에 관심을 가지거나 할까? 5분 내에 프리젠테이션을 끝내지 못하면 어쩌지? 걱정은 시작하는 순간 꼬리에 꼬리를 물고 늘어지는 법이다.

일단 다른 업체들의 Speech부터 살펴보니, Thomson Scientific이나 CAS 같은 메이저 특허정보 서비스업체들은 특정 서비스 또는 신규 서비스 한 가지를 세부적으로 소개하는데 5분을 할애하고 있었다. Questel·Orbit의 경우 5분내에 한 가지 서비스의 절반도 소개하지 못하고, 당황하여 단상을 내려가기도 했다. 하지만, 특허정보원의 경우 메이저 업체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인지도가 낮기 때문에, 구체적인 상품 홍보를 전개할 단계는 아니라고 판단하였다. 일반적인 정보원 소개에 이어, KIPRIS, KPA, FORX, 특허정보전략사업등을 차례로 간략하게 소개하는 방향으로 발표를 진행하기로 하였다.

피할 수 없는 결전의 시간이 다가왔다. 약 1m 정도의 단상에 오르고 보니 350명의 관중이 한눈에 들어온다. 발표가 시작되고, 사람들이 열심히 필기를 하기 시작한다. 진지한 분위기속에서 5분은 순식간에 지나갔고, 내가 전달하고



Technical Session 참관

자 했던 내용의 98%는 전달했으니 기분이 나쁘지는 않다. 하지만, “조금 더 잘 할 수 있었는데..” 하는 아쉬움은 언제나 사라지지 않는다.

언제나 아쉬운 마지막 순간

5분 Speech의 마지막 일정을 끝내고, 특허정보원 일행은 부스를 정리하기 시작했다. 행사 마지막날인 25일 오후에는 Arlington에 소재한 한 회사와 Business Meeting이 약속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이 때, PIUG 위원회의 한 사람이 나에게 악수를 건네며 명함을 건넸다. 그는 특허정보원의 5분 Speech가 인상적이었으며, 2006년도 PIUG Conference에서 보다 긴 시간을 할애하여 세미나를 진행해 줄 의향이 있다고 물었다. 본인은 망설이지 않고, 기회가 주어진다면 기꺼이 세미나를 진행하겠다고 대답했다. 사실 이미 어제 PIUG 위원들과 2006년도 PIUG Conference에서 특허정보원이 KIPRIS검색방법에 대한 30분 정도의 발표진행을 맡는 것에 대해 어느 정도 논의를 한 바 있기 때문이다.

PIUG Conference의 경우 참가자 대부분이 동 시간대에 하나의 세미나에 참석하므로, 세미나를 진행할 경우 굉장히 큰 홍보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EPIDOS Conference의 경우 동 시간대에 여러개의 소규모 워크샵이 진행되므로, 세미나를 진행하더라도 하더라도 대규모의 관중을 끌어 모으기는 어렵다) 또한 세미나 청취자들이 실시간으로 질문을 하므로, 해외이용자의 요구사항을 가장 직접적으로 파악할 수 있기도 하다. 좋은 기회가 아닐 수 없다.

마지막으로, 2006년도 PIUG Conference 출장자들에게 한 가지 당부하고 싶다. 가능하다면, 세미나 또는 5분 Speech를 컨퍼런스 일정의 초반에 진행할 수 있도록 스케줄을 조정하라는 것이다. 대부분의 참가자들이 세미나나 5분 Speech가 끝난 직후, 관심 있는 발표에 해당하는 부스로 이동하기 때문이다. 2005년 출장자들의 경우, 5분 Speech 후 점점 늘어나는 부스 방문자들을 뒤로하고 마지막 부스정리를 해야 하는 상황이 참으로 안타까웠다.

2005 PIUG Conference, 세계가 한국특허정보에 주목하고 있음을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소중한 기회였다. 물론, PIUG 측에 기여도가 낮은 일본(2005년의 경우 일본의 어느 업체도 PIUG Conference에서 부스운영을 하지 않았다)이 매년 PIUG의 Speaker로 초대받아 온 현실을 직시할 때, 한국특허정보가 나아가야 할 길은 아직 멀고 험하다는 생각 또한 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나아가야 할 길이 멀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안에 내재된 역량을 자랑할 수 있는 기회 또한 많다는 것을 의미할 것이다. 2006년 PIUG Conference, 별떼처럼 외국인들이 모여 있는 KIPRIS 부스를 기대해 본다. 